

헤르페스 2형 상해죄 및 과실치상죄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남자, 피고소인: 여자)

상해죄 및 과실치상 무혐의가 가능한지, 무혐의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인(남자) 증상 및 병원진료]

6/6, 6/15, 6/20, 6/24 관계했으나 이상없었음 (6/7~14, 피고소인(여자)은 친구 3명과 8일간 해외여행다녀옴)
6/27(금) 저녁 20~22시경 고소인이 뽀루지났다면 보여주고, 남자는 원래 가끔 이렇다며 콘돔없이 관계함

[6/27일 대면 대화 중]

피고소인 : 원래 성기에도 뽀루지가 나?

고소인 : 남자는 원래 여기에도 나. 1년전에도 났다가 며칠만에 없어졌어' 이후 콘돔없이 관계함

*평소 고소인은 헤르페스는 성병이라는 인지와 관심이 있었으며, 피고소인은 '헤르페스가 뭐지? 들어보긴했는데 정확히 뭐야?'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헤르페스 질환에 관여도가 낮고 관심이 없었음

6/30(월) 고소인 성병 관련 혈액검사받음

7/2(수) 혈액검사 음성 결과받았으나, PCR검사 추가진행

7/5(토) 고소인은 추가 뽀루지가 생겼는데도 혈액검사는 음성이라며 1시간 넘게 콘돔없이 관계시도함
피고소인이 거부하였는데도 나중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문지름

7/7(월) PCR결과 고소인 헤르페스2형 확정

[논쟁]

고소인은 헤르페스 확진되자마자 전화(2분28초)와 특으로 '무조건 너한테서 옮은건데 이거', '극초기 감염이고 최근에 너랑만 했으니 무조건 너한테서 옮은거다', '너한테서 옮은게 맞다는 합리적인 이유가있으니 들어봐라'며 피고소인을 무조건적인 전염원인으로 몰아가기만하는 태도를 보여 기분나빠서 헤어지자하였음.
이별통보 듣자마자 고소인은 바로 '그럼 고소할게'라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하다 함.

- 고소인 주장 : 혈액검사가 음성인 이유는 초기여서 미검출인거고 PCR양성이 나왔으니 극초기 확진임
최근 피고소인하고만 관계했으니 피고소인이 감염원인임.
- 피고소인 반문 : 헤르페스가 뭔지도 잘 모를뿐더러 평생 음부쪽 이상증상으로 산부인과 내원한적 없음.
5월 종합건강진 및 6월 냉동난자 준비로인한 질초음파시에도 이상소견 없었음

[피고소인(여자) 증상 및 병원진료]

7/10(금)22시, 피고소인 음부쪽에 이상한 점 느껴 헤르페스 전염을 확신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익일 생리 시작하면서 없어짐

7/14(월)18시, 산부인과 내원하여 남자친구 뽀루지/성병 확진으로 성병 검사 해달라하였고
감염 및 활동성 검출 확률이 높은 질내검사로 STD12종&HPV100종 검사 받음

7/15(화)16시, 다른 산부인과 내원하여 너무 걱정되니 혈액검사 해달라고하였으나,
어제 타병원에서 PCR검사했으니 결과 먼저 확인하라하고 추가 검사안함

7/16(수)18시, 사마귀 및 성병 관련 바이러스 모두 음성

7/18(금)15시, 스트레스,건강염려증,생리기간 등등이 겹치며 무릎옆피부질환발현/어지러움증으로
가정의학과 내원하여 약처방받았으나 복용하지않았고 2,3일뒤 증상 사라짐

* 고소인 성기 뽀루지상태로 피임기구없이 관계한 점과 음부에 문지른 점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 피고소인은 그동안 아무 병변/증상/발현도 없었고, 만나왔던 상대방들도 전혀 그런 얘기없었는데
변호사 공부하는 고소인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하여 고소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줌

[고소인 고소진행]

7/25(금) 18:23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고소인이 고소하였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함

문의1. 피고소인은 7/14 STD질내검사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 미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나 검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도 상해죄나 과실치상 죄가 성립되나요?

문의2. 고소인이 '최근 다른 사람과 관계한 적이 없다'를 입증하여 저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게되면 제가 무조건 혐의가 있는건가요? 그럼 제가 무조건 혈액검사를 받아서 무증상 보균자일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문의3. 과거에도 뽀루지한 적이 있는 고소인이 당시에 병원 진료를 받지않아 감염여부를 모르고있다가 최근 면역력이 약해져서 뽀루지가 올라오며 이제야 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혈액검사 미검출이라는 것은 꼭 초기감염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검사의 오차범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문의4. 고소인은 그동안 뽀루지가 2차례 발현되었고 성병 헤르페스에 대한 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라며, 성병에 무지한 피고소인과 피임기구없이 관계했습니다(6/27). 이후에도 PCR결과 기다리는 상태니 피고소인은 관계를 계속 거부하였으나 고소인은 계속 관계시도하며 피고소인의 음부에 뽀루지에 딱지까지만 성기를 문질렀습니다(7/5). 이 상황에서도 피고소인에게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나요?

문의5. 카톡내용中 고소인이 '너도 보균여부를 몰랐을 수 있지'라고 말하여 피고소인이 보균여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의성이 없거나, 무고할 줄 예상하면서도 '고소'라는 것에 집착하여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피고소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될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문의7. 이후 저에게 증상이 생기거나 혈액검사 결과 양성이 뜨는 경우, 제 정황상으로는 그동안 증상이 없다가 생긴거니 고소인으로부터 옮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땐 제가 고소인을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상해/과실치상 혐의]

*6/27 뽀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거 별거 아니라며 피임기구 없이 관계하였음

*7/5 PCR결과 대기중이며 뽀루지에 딱지가 생기고, 추가 뽀루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피임기구 사용하지 않고 관계 시도하고 음부에 성기를 문지름

추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은 직업이 없고 학자금대출이 있는 상태로 생활비는 부모로부터 받아서 생활하는 학생이며, 피고소인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변호사 준비하는 기간에 임신해서 결혼하자', '나이차이가 있으니 속도위반하자', '질내사정 하면 안되냐, 왜 안되냐'라는 농담을 하며 강력하게 결혼하고싶어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헤르페스 확진과 이별에 분노하여 고소한것으로 보여집니다.